외톨이들의 우정, 기적이 되다!

빨간 기차가 도착하는

# 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줘

駅までの道をおしえて

이주인 시즈카 소설 원작

닛츠 치세 오이다 요시 그리고 아리무라 카스미

2022 February, Vol.145

JEONJU
cine complex
jeonjucinecomplex.kr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3길 22
전주영화제작소 063)282-1400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063)231-3377

감독초청 GV <미싱타는 여자들> 2.4 금 19시
후원회원시사회 <늦봄2020> 2.8 화 20시
전주 쇼케이스 <코리도라스> 2.9 수 19시 40분
픽업시네마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 2.23 수 19시
전주 아트톡 <원 세컨드> 2.16 수 19시

1F

전주영화제작소

# 자료열람실

## 2월 개봉영화 × 자료열람실

매월 개봉영화와 연계된 자료열람실 작품추천 코너

### 장예모 감독의 초기 대표작

**붉은 수수밭**
장예모

**국두**
장예모

**홍등**
장예모

### 코폴라라는 타이틀을 벗은 니콜라스 케이지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마이크 피기스

**더 록**
마이클 베이

**패밀리 맨**
브렛 래트너

## 자료열람실 이용안내

**이용시간 및 요금** 오후 1시 ~ 7시까지 / 무료

**이용방법**
① 열람하고 싶은 자료를 목록에서 선택한다.
② 열람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 요청한 자료를 지정된 좌석에서 열람한다.
④ 열람 후 자료를 담당자에게 반납한다.

**보유자료**

독립·예술영화 DVD & Blu-ray, 한국고전영화 VOD, 영화관련 도서, 정기간행물,
후반제작시설관련 기술서적

※ 자료열람실 보유 자료들은 실내 열람만 가능하며, 외부 반출이나 대여는 절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2020년부터 물품보관함이 설치됩니다. 열람실 이용시 개인물품은 보관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수칙으로 음료나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제한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전화통화, 큰소리 대화)나 직원 안내에 불응시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착자료 목록

DVD / Blueray

| |
|---|
| 심판_파티 아킨 |
| 천국의 가장자리_파티 아킨 |
| 소울 키친_파티 아킨 |
| 짧고 고통없이_파티 아킨 |
| 종횡사해_오우삼 |
| 공포분자_에드워드 양 |
| 지옥의 묵시록_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
| 익사일_두기봉 |
| 암전_두기봉 |
| 암전2_두기봉 |
| 스패로우_두기봉 |
|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_셀린 시아마 |
| 워터 릴리스_셀린 시아마 |
| 걸후드_셀린 시아마 |
| 톰보이_셀린 시아마 |
| 마약전쟁_두기봉 |
| 트랙 29_니콜라스 뢰그 |
| 유레카 (용의자)_니콜라스 뢰그 |
| 마녀와 루크_니콜라스 뢰그 |
| 배드 타이밍_니콜라스 뢰그 |
| 워커바웃_니콜라스 뢰그 |
| 지구에 떨어진 사나이_니콜라스 뢰그 |
| 초원의 강_켈리 레이카트 |
| 불멸의 연인_버나드 로즈 |
| 올리비에 올리비에_아그네츠카 홀란드 |
| 암살의 그림자_아그네츠카 홀란드 |
| 미스터 존스_아그네츠카 홀란드 |
| 유로파 유로파_아그네츠카 홀란드 |
| 우리의 환대_버스터 키튼 |
| 셜록 2세_버스터 키튼 |
| 카메라맨_버스터 키튼 |
| 홧김에 한 결혼_버스터 키튼 |
| 프리 앤 이지_버스터 키튼 |

방역패스 적용 변경 안내

전주영화제작소

# 방역패스 적용 해제

우리 시설은
**중대본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로 인해**
**별도 고지시까지 백신접종증명 확인 없이 이용 가능**
합니다. (단, 기본 방역 수칙 준수는 유지 됩니다.)

-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하기
- ✓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 ✓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 ✓ 가급적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관리자의 수칙 준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퇴장을 요구하거나 방역당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씨네퍼즐

**문항에 비어있는 낱말을 퍼즐에서 지워나가며
숨겨진 단어를 찾아주세요.
퍼즐을 풀어 현장 티켓박스에
응모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분께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영화관람권 2매를 드립니다.**

- 응모가능 기간 : **2월 2일(수)~2월 8일(화)**
- 당첨자 발표 : **2월 9일(수) 이후 당첨자 개별 연락**

정 답:

이 름:

연락처:

1. 1월 27일 개봉작은 김동령, 박경태 감독의 <임신한 나무와 ○○○>이다.
2. <○ ○○○>는 1월 28일에 개봉하는 중국 5세대 대표 감독 ○○○의 신작이다.
3. ○○○ 목사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늦봄2020>은 2월 10일에 개봉한다.
4. 2월 11일에 개봉하는 <굿 ○○>는 스페인의 페르난도 레온 데 아라노아 감독의 작품이다.
5. <리코리쉬 피자>는 폴 ○○○ 앤더슨 감독의 새 영화로 2월 17일에 개봉한다.
6. 2월 9일 수요일 19시 40분에 하는 2월 전주 쇼케이스 작품은 <○○○○○>이다.

| | | | | |
|---|---|---|---|---|
| 원 | 스 | 장 | 라 | 비 |
| 모 | 환 | 도 | 그 | 도 |
| 리 | 컨 | 스 | 토 | 문 |
| 깨 | 마 | 익 | 코 | 드 |
| 예 | 보 | 스 | 세 | 피 |

# 4F JEONJU digital indep. cinema

<관람료 안내>
일반 7,000원
후원회원 / 단체(10인 이상) 6,000원
경로/어린이/청소년/국가유공자/장애인 5,000원

**개봉 예정작** 동시대에 개봉하는 독립· 예술영화 상영

01 27 개봉

##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 (The Pregnant Tree and the Goblin, 2019)

감독 : 김동령, 박경태 | 출연 : 김아해, 신승태, 신육숙, 조은경 | 115분 | 드라마, 판타지 | 15세 관람가

"마침내 죽음이 찾아왔다."
한 번 들어오면 빼도 박도 못하고 죽어야 나갈 수 있는 곳 '뺏벌'.
그곳엔 누구보다 죽음을 많이 본 여자, 인순이 있다.

저승사자들은 뺏벌의 유령들을 데려가기 위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인순은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펼치기 시작한다.

01 28 개봉

## 원 세컨드 (一秒钟, 2020)

감독 : 장예모 | 출연 : 장역, 범위, 류 하오춘 | 103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영화 시작 전 상영되는 뉴스 필름에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딸이 등장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장주성은
텅 빈 사막을 헤치고 외딴 마을의 영화관으로 향한다.
그러나 눈 앞에서 정체불명의 필름 도둑이 필름을 훔쳐 달아나 버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황급히 그 뒤를 쫓아 나서는데…

딸의 모습이 담긴 시간은 단 1초,
딸을 만나기 위한 아버지의 눈물의 여정이 시작된다

02 03 개봉

## 인어가 잠든 집 (人魚の眠る家, 2018)

감독 : 츠츠미 유키히코 | 출연 : 시노하라 료코, 니시지마 히데토시, 사카구치 켄타로, 카와에이 리나 | 120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어느 날 사랑하는 딸에게 닥친 뇌사라는 비극.
나는 아직 내 아이의 손을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딸 '미즈호'에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난다.
사고 이후 '미즈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의사는 뇌사 선고와 함께 장기 기증을 제안한다.
마지막 인사를 하던 그때, 엄마 '카오루코'는 '미즈호'의 미세한 움직임을 느끼고 장기 기증을 거절한다.
모두가 '미즈호'가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하지만 '카오루코'는 언젠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적을 믿는다.

안녕, 엄마. 건강하게 잘 지내
사랑하는 나의 아가, 영원히 영원히 지켜줄게

02 10 개봉

## 늦봄2020 (Blooming over the line, 2020)

감독 : 박규현 | 70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1918년 만주 북간도의 독립운동가들의 이상촌에서 태어난 문익환 목사.
그는 일제의 탄압 속에 어릴 적 벗 윤동주를 잃고 유신정권의 폭정으로 친구 장준하를 잃었다.
또한 남북을 갈라놓은 휴전선 회담을 직접 통역하고 분단된 조국에 손을 내밀며 대한민국 근대사의 격량을 온몸으로 살아냈다.
전 생애를 통해 시대를 끌어안으며 고통받는 모든 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피워낸 문익환 목사.
<늦봄2020>은 최초로 현존하는 육성 자료로 문익환의 목소리를 복원하여 그 시대의 생생함을 전달한다.

02 11 개봉

## 굿 보스 (El buen patron, 2021)

감독 : 페르난도 레온 데 아라노아 | 출연 : 하비에르 바르뎀, 마놀로 솔로 | 120분 | 드라마, 코미디 | 15세 관람가

"심사위원이 들이닥치기 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우수기업상 최종 후보에 오른 '블랑코 스케일즈'는
골칫거리 직원들 때문에 수상이 물 건너갈 판이다.

사장 '블랑코'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지만
그가 개입할수록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
겉보기에 완벽했던 '굿 보스'의 실체가 밝혀지는데…

02 17 개봉

## 리코리쉬 피자 (Licorice Pizza, 2021)

감독 : 폴 토마스 앤더슨 | 출연 : 알라나 하임, 쿠퍼 호프만 | 134분 | 멜로/로맨스, 드라마 | 15세 관람가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에 빠진 소년 개리와
불안한 20대를 지나고 있는 알라나

1973년 어느 찬란한 여름날
청춘의 한복판으로 달려가는 그들의 이야기

02 24 개봉

## 피그 (Pig, 2021)

감독 : 마이클 사노스키 | 출연 : 니콜라스 케이지, 알렉스 울프, 아담 아킨 | 91분 | 드라마, 스릴러, 미스터리 | 12세 관람가

"진정으로 소중한 건 쉽게 얻을 수 없어"
이름을 버리고 숲속에서 트러플 돼지와 살던 '롭'.
그를 방문하는 사람은 푸드 바이어 '아미르' 뿐이다.

어느 날, '롭'은 낯선 이들이 훔쳐간 소중한 돼지를 되찾기 위해
'아미르'의 도움을 받아 15년 전에 떠난 포틀랜드로 다시 돌아간다.

그곳에서 '롭'은 한때 가까웠지만 이제는 자신을 잊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는 사라진 돼지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진짜 이름을 밝히게 되는데…

2 월 예정

## 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줘 (駅までの道をおしえて, 2019)

감독 : 하시모토 나오키 | 출연 : 오이다 요시, 아리무라 카스미 | 126분 | 드라마 | 전체 관람가

소중한 건 기다리는 게 아니야, 찾으러 떠나는 거야!
새로운 세상을 알려준 루가 봄과 함께 떠났다
사야카는 처음 겪는 이별이 낯설기만 하다

오래전 아들을 잃은 할아버지 후세와 함께
헤어진 이들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려 하는데…

그곳에서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 감독초청 GV

<미싱타는 여자들> 개봉을 기념하여
감독초청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관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람료
일반 7,000원
회원 6,000원
경로, 어린이 5,000원

미싱타는 여자들

일시 | **2월 4일(금) 19시**
게스트 | **이혁래 감독, 김정영 감독(온라인 참석)**
진 행 | **강지이 감독**

※ 일정 및 게스트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방역정책 및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온라인 전환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주 아트톡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매월 1회 개봉영화
한편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심층해설을 진행하는
'전주 아트톡'을 진행합니다.
관객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람료
일반 7,000원
회원 6,000원
경로, 어린이 5,000원

**원 세컨드**
(一秒钟, 2020)
감독 : 장예모
| 출연 : 장역, 범위, 류 하오춘 | 103분
| 드라마 | 12세 관람가

영화 시작 전 상영되는 뉴스 필름에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딸이 등장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장주성은 텅 빈 사막을 헤치고
외딴 마을의 영화관으로 향한다.
그러나 눈 앞에서 정체불명의 필름 도둑이 필름을 훔쳐
달아나 버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황급히 그 뒤를 쫓아 나서는데…

일시 | **2월 16일(수) 19시**
게스트 | **조재휘 영화평론가**

※ 영화 상영 후 전문가 초청 심층해설이 진행됩니다.
※ 본 행사는 방역정책 및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온라인 전환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PICK UP 픽업시네마 CINEMA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문화예술인을 1명씩 초청하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마지막 회차에
관객들과 함께 보고 싶은 작품 상영 및 씨네토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 Cezanne et moi, 2015
감독 : 다니엘르 톰슨 | 출연 : 기욤 갈리엔, 기욤 까네 | 114분 | 드라마 | 15세 관람가

시놉시스
남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만난 두 소년,
화가를 꿈꾸는 폴과 글을 쓰는 에밀은
어린 시절부터 희망, 좌절, 꿈과 사랑까지 모든 것을 공유한다.
서로를 동경하고 무척 아끼면서도, 냉혹한 평가 또한 서슴지 않으며 함께 성장하는 두 사람은
청년이 된 후, 파리에서 다른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화가와 작가의 길로 들어선다.
[테레즈 라캥], [목로주점] 등을 출간하며 명성을 쌓는 에밀과
천재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폴.
한때는 모든 것을 함께했지만, 엇갈리는 운명을 맞이하고
에밀이 비참한 화가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발표하자 폴은 에밀을 찾아가는데...

40년에 걸친 두 예술가의 위대한 우정이 공개된다!

## 선정사

폴 세잔은 기하학적 형태와 다소 과장된 색채를 이용한 추상에 가까운 작품을 남김으로써, 사실주의 기반의 고전회화에서 근대회화로 넘어가게 되는 신호탄을 날렸다. 그럼으로써 이후에 입체파 화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그래서 그를 '근대회화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당대에는 크게 주목받는 화가는 아니었다. 이런 그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옹호하던 사람이 소설가로 승승장구 하던 에밀졸라였다.

영화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은 이 두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옮긴 작품이다. 세잔은 1886년 에밀졸라가 쓴 소설 '작품'을 보고나서 평생 그를 만나지 않았다. '작품'은 시대에 따라가지 못한 재능 없는 화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내용으로, 세잔은 자신이 이 소설의 모티브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 만큼 두 인물을 중심으로 그 당시 사회적 배경과 미술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관 람 료 : 일반 7,000원 / 회원 6,000원 / 경로, 청소년, 복지 5,000원**
- **상영일시 : 2월 23일(수) 19시, 게스트 | 서완호 서양화가**

※ 상영 후에 게스트와 함께하는 씨네토크가 진행됩니다.
※ 본 행사는 방역정책 및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온라인 전환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게스트 프로필

**서완호**
서양화가

전주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화가이다. 현재 '팔복예술공장'에서 작품활동 및 전시를 진행 하고 있다.
'모호구역 (교동아트미술관. 전주)',
'조용한 땅 (프로젝트 경성방직. 서울)',
'Hidden Place. (Lotus 갤러리. 광주)',
'아트빌리지 3!1!5! (화이트블럭. 천안)'
등의 전시회에서 작품을 발표하였다.

# 후원회원 시사회

무료상영

매월 관객설문조사 상위권 작품 가운데
1편을 선정하여 개봉 하루 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후원회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시사회

**늦봄2020**
(Blooming over the line, 2020)
감독:박규현 | 70분 | 다큐멘터리 | 전체관람가

일시 | **2월 8일(화) 20시**

1918년 만주 북간도의 독립운동가들의 이상촌에서 태어난 문익환 목사. 그는 일제의 탄압 속에 어릴 적 벗 윤동주를 잃고 유신정권의 폭정으로 친구 장준하를 잃었다. 또한 남북을 갈라놓은 휴전선 회담을 직접 통역하고 분단된 조국에 손을 내밀며 대한민국 근대사의 격량을 온몸으로 살아냈다. 전 생애를 통해 시대를 끌어안으며 고통받는 모든 곳에서 희망의 불씨를 피워낸 문익환 목사.
<늦봄2020>은 최초로 현존하는 육성 자료로 문익환의 목소리를 복원하여 그 시대의 생생함을 전달한다.

상영시작 1시간 전부터
후원회원에 한하여 선착순(1인 1매)으로
티켓 증정(단, 티켓 소진 시 입장 불가)

■ 후원회원 본인만 입장 가능 / 일반관객은 후원회원 가입 후에 입장가능
■ 후원회원 가입 안내
- 매표소 현장에 비치된 가입서 작성후 현금(또는 계좌이체)로 회비납부
- 가입회비 : 평생회원 50,000원/1년 단기회원 20,000원

# 전주 쇼케이스

무료상영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가운데
미개봉작 1편을 선정하여 감독,
배우 또는 영화전문가와 토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코리도라스**
(Corydoras, 2021)
감독:류형석 | 87분 | 다큐멘터리 | 12세관람가

박동수는 20년 넘게 생활하던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 자립해 살아가고 있다. 시설에서부터 시를 써 왔지만 요즘 들어 시가 잘 써지지 않아 힘들어하던 어느 날 수족관에서 '코리도라스'라는 물고기를 사온다. 한참 동안 코리도라스를 바라보다 잠이 든 그는 과거에 생활하던 시설에 관한 꿈을 꾸게 되고 자신이 써 온 시의 흔적을 찾기 위해 부산의 시설로 향한다.

일시 | **2월 9일(수) 19시 40분**

게스트 | **류형석 감독**　　진행 | **김동복 장애인권활동가**

※ 제 2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 본 행사는 방역정책 및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온라인 전환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영시작 1시간 전부터
선착순(1인 2매까지 가능)으로
티켓 증정 (단, 티켓 소진 시
입장 불가/주차도장 발급 안됨)

전주영화제작소

# 카카오톡 채널 안내

플러스친구가 카카오톡 채널로 변경되었습니다

Ch 전주영화제작소 +

영화의 다양한 모습을 연구하기 위한 예술독립 영화와
영상문화기반 콘텐츠, 후반제작설이 한곳에!

##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❶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❷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❸ 홈에서 채널 추가

kakaotalk

{ 개봉영화 심층칼럼 }

# 우리 모두의 얼굴, 프랑스

**프랑스**
**(FRANCE, 2021)**

**프랑스**
(FRANCE, 2021)
감독 : 브루노 뒤몽
출연 : 레아 세이두, 블랑쉬 가르딘, 벤자민 비올레이
133분 I 드라마 I 12세 관람가

**강선형**
영화평론가

프랑스 드 뫼르(레아 세두)는 프랑스 전역에서 사랑받는 저널리스트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프랑스'로 뉴스 채널을 이끌면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스튜디오에서 토론을 주재하며, 전쟁터를 누비면서 생생한 현장을 전한다. 모두가 그녀에게 사인을 받고 싶어 하고, 그녀의 사진을 찍으며, 말 한마디와 표정에도 감동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프랑스는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떤 수치나 사실관계를 통해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폭탄이 터지고 있는 현장으로 뛰어들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자신의 느낌을 말한다. 그녀가 전하는 것은 진실한 감정이고,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체화한 존재가 된다.

그렇지만 사실 프랑스는 분명 전쟁의 한 가운데 뛰어들면서도 이내 포화에 휩싸인 지역을 벗어나 보안이 철저한 휴양호텔에 머물며 안전한 휴식을 취하고, 군인들을 만나 총기를 머리 위로 흔드는 등 원하는 특정 장면들을 연출하기에 바쁘다. 그녀의 '르포'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난민들의 엑소더스 현장을 취재할 때 가장 잘 두드러지는데, 그녀는 난민들이 올라탄 배에 함께 탑승하면서 그들이 겪는 일들을 보도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배에 계속 함께 탑승해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배에 타고 내리면서 부딪치는 그들에게 말 한마디도, 어떤 눈길도 건네지 않는다.

철학자 데리다는 이런 방식으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생생함'이라는 것을 '인공적 현재성(artefactualité)'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 현실성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허구적인 공정을 거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우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녀는 사실 프롬프터를 읽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들키게 되지만 실시간으로 반응을 체크하는 루(블랑슈 가르댕)처럼 시청률 기계가 존재한다는 것. 데리다가 말하는 인공적인 현재성은 바로 그것들을 가리킨다. 진정으로 생생한 것이 아니라, 현재성이라는 효과만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는 프랑스와 함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현실을 살고 있다.

미디어가 허구적인 진실을 보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도 더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특히 요즘처럼 대선국면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다. 그렇지만 한 가지 프랑스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사건을 언급하자면, 1984년 일어났던 '그레고리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레고리라는 어린아이가 집 앞마당에서 놀던 중 사라졌는데, 이후 강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현재까지도 진짜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기자들이 너무 경쟁적으로 취재하고 자극적으로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레고리의 어머니가 범인으로 지목되고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마르그리트 뒤라스와 같은 대가가 직접 목격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그레고리의 어머니를 범인이라고 확정하는 글을 발표하여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여전히 더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현실성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에 바쁜 미디어의 속성을 알려오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있다.

어쩌면 단지 개인의 문제일까? 위 사건에서 단지 뒤라스의 편협한 사고를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프랑스>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단지 프랑스의 기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프랑스는 그 자신 역시 자기 삶의 현실과 인공적인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물이다. 남편과 아이와의 갈등,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된 소년, 단지 쓸모 있는 예쁜이일 뿐이라는 정치인의 비난. 끊임없이 자신의 완벽한 인공적 현실에 침투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그녀의 실재 삶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양자택일할 수 없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하

게 된다. 프랑스는 어쩌면 우리에게 인공적인 현실만을 제공하는 가해자이기도 하겠지만, 그녀 자신이 수난자이기도 한 것이다. 프랑스의 클로즈업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어떤 프랑스인가?

프랑스의 선택을 담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우리의 각종 SNS가 구축하고 있는 모든 인공적인 현실들을 완전히 버리고, 실제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정말로 선택 가능한 것이라면, 가공된 그 완벽한 삶을 선택하고 싶지 않을까? 영화 속에서 루가 말하는 것처럼 그 인공적인 현실 속에서는 영원히 끝나버리는 관계 같은 것은 없고 '미워하다가도 좋아서 환장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들만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관계는 일방적이겠지만 말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우리는 어느 한 쪽의 삶을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이행할 수 없다. 두 삶은 끊임없이 중첩되고 얽혀 있어서 우리는 그 엉킨 실들을 남은 삶 동안 다 풀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마지막 선택은 사실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조작자이면서 수난자다. 프랑스의 얼굴은 그 모든 얼굴들을 가지고 있다.

전주 쇼케이스 1월 상영작

# <말아>
# 관객과의 대화

### with 곽민승 감독

**말아**
(Rolling Girl, 2021)

감독 : 곽민승 I 출연 : 심달기, 정은경, 박효원 I
75분 I 드라마 I 12세 관람가

**최진영(진행/영화감독)** : 정말 이 시기적절한 영화가 아닐 수 없죠.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삶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곽민승(감독)** : 아…….일단은 작년? 재작년이군요. 2020년도에 시나리오를 쓸 때쯤에 코로나가 한창이었고 그래서 그때 막연하게 우리가 보는 TV 라든지 드라마, 영화에서의 세상은 아직 온전한데 지금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이질감을 많이 느꼈고 그냥 이거를 반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강력하게 들었어요. 영화에 등장하는 김밥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계속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아서 이전에도 음식 관련된 것들을 만든 적이 있어서 뭐가 됐든 김밥에 관련된 영화로 만들어보고 싶다. 이 두가지 생각을 통해 코로나 시국과 김밥이 믹스돼서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진영** : 저는 이 영화가 상실과 애도라는 주제로도 읽혔거든요. 주리라는 캐릭터가 옛 남자친구와의 어떤 영상을 보면서 약간 미련을 갖는듯한 회환이기도 할 것 같고, 그런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고, 후반부에 와서는 할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영심과 주리 모녀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성장 다음으로도 읽혔지만 한편으로는 상실을 조금씩 인정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할머니의 죽음을 넣은 계기가 궁금합니다.

**곽민승** : 아…….할머니의 죽음을 넣기 전에 일단 주리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있는데 엄마의 엄마라는 존재가 주리에게 느껴진다면 그녀는 자기와 엄마의 별로 좋지 않은 상황속에서 엄마에게도 엄마가 있었고 자기와 비슷한 시절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할머니의 죽음은 제가 예전에 비슷한 일을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겪은 바가 있어요. 처음으로 가까운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리가 어떤 반응을 느낄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엄마와의 관계는 어떻게 호전되거나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관객 1** : 좋은 영화에 좋은 배우분들이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캐스팅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곽민승** : 일단 달기 배우는 주리 역을 그냥 오픈해놓고 생각해봤을 때 누가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은 분들을 찾아서 오디션을 진행해보고 찾아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봤었고 그와 동시에 따로 내가 생각했을 때 누가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결국에 오디션을 통해서 제가 맞는 배우는 찾지 못했어요. 동시에 달기 배우님 쪽에 연락을 드려서 해보지 않으시겠느냐는 얘기가 오갔고 오디션처럼 리딩을 했는데 마음에 들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주리 역할 배우 때문에 계속 난항이었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같이 이제 그 배우는 모르고 저희끼리 이야기해 봤을 때 모두가 달기 배우를 보고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다들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미팅한 이후 결국에 같이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배우분들 또한 제가 이전에 영화에서 봤다든지 아니면 다른 드라마나에서 보고 같이 하면 좋겠다는 분들, 제가 그 전에 마음속에 두었던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나머지 배우분들도 차곡차곡 캐스팅이 됐습니다.

**최진영 감독** : 정은경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캐릭터도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일단 줌바 댄스를 항상 다니시는 어머니 그리고 김밥집에 붙어 있는 신문 기사들이 어머니의 어떤 관심사를 알려주잖아요. 어머니 캐릭터는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곽민승 감독** : 원래 줌바도 아니고 요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주리랑 뭔가 반대로 활동적인 여자가 붙어야 뭔가 부딪히는 게 있겠다, 그리고 세상에 관심도 많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랬을 때 줌바, 역동적인 줌바를 할 것 같았어요. 그냥 세상에 관심도 많고, 신문 스크랩도 하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정은경 배우

님과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걸 느끼고 해석한 대로 만들어주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표면적일 수 있었던 건데 나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셔서 그런 재밌는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투샷을 봤을 때 진짜 모녀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정은경 배우님은 김밥을 못 말고 심달기 배우가 오히려 더 잘 마는데.

**관객 2** : 여러 음식 중에 김밥이라는 소재를 선택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곽민승** : 제가 <말아>를 찍기 전에 샌드위치 관련된 이야기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걸 찍고 나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 가지고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샌드위치와 맞먹는 한국의 대중적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영양적으로 빠질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뭘까 했을 때 당연히 김밥이었어요. 저도 김밥을 너무 좋아하서 그런 생각으로 김밥을 하게 됐어요. 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김밥을 말잖아요. 그 의미의 '말아' 임과 동시에 뭔가 가제로 생각해 봤었던 게 주리가 계속 뭔가 하다가 고꾸라지고, 관계도 고꾸라지고 계속 말아먹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의적인 '하지 말다'의 '말아'까지 중의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제로 정했던 게 심플해서 결국 최종제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관객 3** : 잔잔하면서도 때로는 뭉클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편집 후에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 궁금합니다.

**곽민승** : 편집이 생각보다…….제가 사실 오늘 오랜만에 본 건데 아쉬운 점들만 많이 더 보이더라고요. 다시 편집하거나 오히려 아니면 다시 찍어야 할 정도의 장면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배우 탓이 아니고 제 탓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14p에서 이어짐

나름 음악을 되게 잘 넣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했거든요. 편집을 다 해놓고 음악을 넣은 게 아니에요. 편집을 하면서 음악에 맞춰 넣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음악을 넣고 보니까 좀 괜찮은 장면이라고 느껴졌던 거는 처음에 엄마한테 전화 받고 "집을 왜 내놨냐." 그러고 나서 음악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혼자 먼지 쌓인 스쿠터 털고 가서 김밥집까지 갈 때 그 흐름이 생각보다 우스꽝스럽길 바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된 것 같고 그 외에는 좀 오히려 아쉬운 게 좀 많아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관객 4 : 코로나와 이야기가 접목되는 부분이 흥미로웠는데요. 이야기에 접목시키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곽민승 : 실제로 찍을 때도 코로나 한창일 때고 그때 거리두기 격상해서 2.5단계~ 3단계 이럴 때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찍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찍어서 그게 은연중에 약간 그런 걱정들이 좀 녹아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신경을 제일 많이 썼던 거는 사실 마스크예요. 마스크... 사실 코로나의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고증하지는 않았어요. 완벽하게 고증하려면 지나가다 누굴 만나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쓰고 배우가 연기를 하면 예쁜 얼굴이 보이지 않고,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계속 대화를 하면 장면이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마스크를 잠깐이라도 벗을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만든다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뭔가를 한다든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대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현재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마스크나 이런 게 영화적 허용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객 5 : 신나라 김밥의 상호명은 우연히 장소를 제공해 주신 상호의 이름이었는지 의도하셨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곽민승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구한 곳의 상호명이 '신나라'였어요. 원래는 따로 이름을 지어서 간판을 달려고 했어요. 로케이션을 다니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수많은 김밥집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저희가 생각했었던 조건에 딱 부합하는 골목길에 코너에 해가 잘 들고 이런게 딱 있었는데 간판이 '신나라' 였어요. '어우 좋다' 해서 그대로 해도 무방하겠다 싶어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니 좋다고 하셔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왜 "신나라 김밥으로 지으셨어요?" 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지었어요. 신나면 좋잖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13p에서 이어받음

3F 전주영화제작소

# 영화 · 영상 후반제작실

전주영화제작소 3층에 위치한 후반제작실에는 영화·영상의 후반작업을 지원하는 **색보정실, 영상편집실, 미디어변환실, 촬영장비실, 영상교육실**이 있다.

## 색보정실

### SGO MISTIKA 시스템

색보정 작업 뿐만아니라 Finighing - VFX - Stereo3D - HFR - HDR- UHD - 8K - Conform - DCP 및 다양한 파일 포맷 입출력 기능까지 갖춘 완벽한 하이엔드 색보정 및 마스터링 솔루션

HDR 및 일반 영상 작업을 위해 필요한 RAW 파일 및 Log 파일들의 Color Space 컨버팅 툴 제공하며 하이라이트 데이터 손실이 많은 Lut 기반이 아닌 컬러 수학 함수로 정확히 계산하는 기능으로 HDR 및 색보정 작업에 정확한 색을 구현하며, SuperWhite Controller로 HDR 영역의 하이라이트를 자유롭게 조정 가능 하다.

### DI 주요 작품

**2021**
[오늘의 안부] – Director 장광균
[럭키택배 : 영원한 사랑] – Director 박영완
[깜빡깜빡] – Director 임다슬
[우당탕탕 외출금지] – Director 김동인

**2020**
[잔칫날] – Director 김록경
[휴가] – Director 이란희
[위안] – Director 이혜린
[아름다운 남자, 시벨롬] – Director 서수민, 박홍식

## 신규 대여장비 안내

무선송수신기 Teradek Bolt 500 XT Set

무선팔로우 TILTA Nucleus-M Partial Kit IV

티비로직 LUM-171G

핸드핼드그립 TILTA UH-T04
Universal Pro Hand Grip System

## 시설 및 장비대여 절차

홈페이지→장비대여→장비,대여날짜 선택→신청하기→
결제방법선택(카드결제,실시간 계좌이체,무통장 입금)→결제진행→장비 사용 후 반납

문의처 : 063) 282-1400 / E-Mail : cineplex@jeonjufest.kr / 홈페이지 : jeonjucinecomplex.kr

## 2월 개봉작 일정

※ 하단 작품 외에 추가 개봉되는 작품은 추후에 홈페이지 및 영화관 현장에서 안내될 예정
※ 상영 시간표 업데이트 주기 변경 : 화요일에 해당주 목~차주 수요일 시간표 공개

### 1월 27일(목)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

### 1월 28일(금)

원 세컨드

### 2월 3일(목)

인어가 잠든 집

### 2월 10일(목)

늦봄2020

### 2월 11일(금)

굿 보스

### 2월 17일(목)

리코리쉬 피자

### 2월 24일(목)

피그

### 2월 예정

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줘

### 후원회원 시사회

늦봄2020

**2월 8일(화) 20시**

▶ 상영시작 1시간 전 선착순무료
(후원회원 본인 한정)

### 전주 쇼케이스

코리도라스

**2월 9일(수) 19시 40분**
with **류형석**
감독

▶ 상영시작 1시간 전 선착순 무료
(1인 2매까지 가능)

※ 방역정책 및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온라인 전환 또는 취소

### 픽업시네마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

**2월 23일(수) 19시**
with **서완호**
서양화가

▶ 관람료 : 7,000원
할인 6,000원
경로, 복지, 청소년 : 5,000원

※ 방역정책 및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온라인 전환 또는 취소

### 전주 아트톡

원 세컨드

**2월 16일(수) 19시**
with **조재휘**
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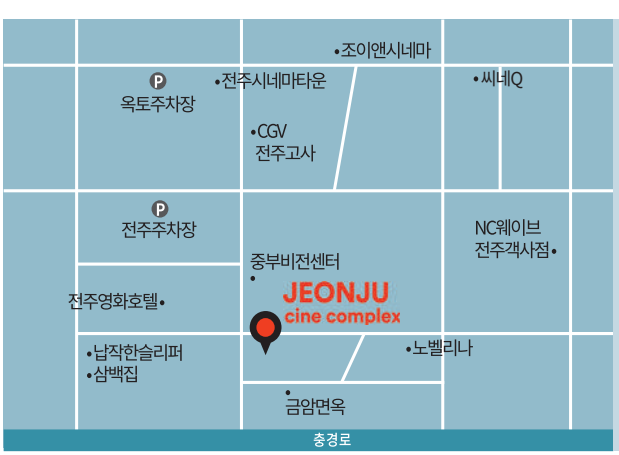
▶ 관람료 : 7,000원
할인 6,000원
경로, 복지, 청소년 : 5,000원

※ 방역정책 및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온라인 전환 또는 취소

## 관람객 매너 안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람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지켜주세요.

- 정시상영
- 상영 10분전 입장
- 사진촬영 불가
- 음식물 반입 불가
- 휴대전화 전원 off
- 관람중 대화 삼가
- 엔딩크레딧 종료 후 점등
- 상영시작 후 발권 및 입장 제한




**전주주차장** 070.8960.9880(고사동 477-1)
영화 1편당 3시간 무료 (2편이상 관람 시 작품 수 만큼 도장 필요)
주차 추가요금 10분당 300원

**옥토주차장** 고사동340-1(전주시네마타운 뒤편)
영화 1편만 최대 3시간 무료
주차 추가요금 30분당 1,000원

※ 단, 무료상영/대관행사는 주차 혜택 없음
※ 옥토주차장은 혜택 시간과 관계없이 밤 10시 이전까지 출차
※ 매표소에서 반드시 주차권에 도장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됨

**JEONJU cine complex**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3길 22
**전주영화제작소** 063.282.1400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063.231.3377
**http://jeonjucinecomplex.kr**
※ 매주 월요일 / 명절 당일 휴관